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⑩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자공이 여러 지역을 두루 여행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채소밭에서 일하는 광경을 보았다. 노인은 물을 대기 위해 도랑을 뚫다. 그런 다음에 우물 속에 내려가 물을 한 통 퍼서 도랑에 붓고 있었다. 그의 노고에 비해 성과는 보잘 것 없었다.

자공은 노인에게 “힘을 조금만 들이고도 하루에 100여 개의 도랑에 물을 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듣고 싶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방법이란 게 뭐요?”라고 말했다. 자공은 “앞을 가볍게 하고 뒤를 무겁게 한 나무 지렛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물을 빨리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레우물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얼굴에 노기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계처럼 일을 하게 된다고 했소.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국 기계처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기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 마음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하는 일에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영혼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감각도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지 않아요.”

(나) 1995년 봄, 미국의 원양 여객선 로얄 머제스티호는 보스턴으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여객선에는 경로 이탈을 막기 위해 GPS 신호를 이용한 각종 최첨단 자동 항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다. 한 시간 정도 항해를 할 무렵, GPS 케이블이 헐거워졌고 항해 시스템은 방향을 잃었다. 시스템은 계속 측정값을 보내줬지만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았다. 30분 이상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하는 동안 선장과 승무원은 전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던 부표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했으나, 선장과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여객선은 좌초 후 침몰했고, 이 사고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 소중한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
1-1. (가)에 드러나 있는 기술에 대한 자공과 노인, 각각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30점)

1-2. (가)와 (나)를 참고하여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태도를 서술하시오. (110자 이내) (35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에 언어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어는 인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과 문화가 함께 작용하는 대상인 동시에 이러한 상호 작용의 도구가 되므로, 언어와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정신 활동의 소산인 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그릇이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이룩한 문화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도 하고, 세계에 대해 우리의 지각이 형성하는 문화 범주를 언어를 통해 구축하기도 한다.

언어의 추상은 문화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방이 바다로 되어 있어 어업을 주로 하며 살아가는 팔라우 사람들의 언어에는 바다와 관련된 현상의 많은 어휘가 섬세하게 발달하였다. 이는 현대 과학의 눈으로도 잡아내지 못한 조수(潮水)의 차이까지 반영할 만큼 그 수준이 높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생물 종과 함께 사는 필리핀 하누누족의 말에는 주변 생물을 부르는 명칭이 아주 세분되어 있다. 새의 종류를 7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말할 수 있으며, 뱀은 10여 가지, 물고기는 60여 가지, 곤충은 100여 가지로 분류하는 말이 있다. 그 가운데 개미 한 종류의 명칭만도 13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인류 지식을 축적한 문화의 보고(寶庫)라고 할 만하다.

한편 언어는 세계에 대한 인식(認識)의 차이를 만들어 내면서 문화를 재단(裁斷)하기도 한다. 무지개의 빛깔을 세 가지로만 표현했던 라이베리아의 밤사족은 무지개 빛깔을 세 가지로 인식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빛깔이 무지개에 내재되어 있겠지만, 무지개 색깔을 구분하는 언어가 한정되어 있었기에 그런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호피족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말이 없기에, 과거와 현재의 시제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 이처럼 언어가 인식의 차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문화는 그 언어를 통하여 이웃으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전승된다. 그런데 언어는 문화의 추상이나 전파, 전승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에 작용하는 원인은 언어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역사적 원인, 문화적 원인 등이 있다. ㉠언어적 원인은 언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이는 맥락에서 음운, 어휘, 문장 구조의 유사성이나 인접성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경우이다. ㉡심리적 원인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화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경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공포감이나 금기가 작용한 완곡어법이나 감정적인 요인에 의한 비유적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원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 간에 어휘가 차용될 때 사회의 구조와 계층, 취향 등이 바뀌면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단어의 의미가 특수화되거나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역사적 원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가 가리키는 지시물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보수성에 의해 단어는 그대로 남아서 의미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이다. ㉤문화적 원인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한편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한다.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거나 주변 문화가 변화하면서 신조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학술 용어를 만들어 쓴다든가, 작가들이 그들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언중(言衆)들도 필요에 따라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언어가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현상도 모두 문화와 관련성이 있다.

2-1. 윗글에서 제시한 언어와 문화의 영향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여 설명하되,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여 근거로 제시하시오. (200자 이내) (45점)

2-2. 다음 대화의 ㉠과 ㉡은 언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원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윗글의 ㉠~㉤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각 10점, 총 20점)

갑 : '소쩍새'란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고 있니?
 을 : 소쩍소쩍 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갑 : ㉠그런데, 민간에서는 풍년이 들어 솔이 적다고 우는 새라는 뜻으로 '솔 적은 새'에서 '소쩍새'가 나왔다고도 해.
 을 : 아하! 소쩍새가 많이 울면 풍년이 든 거구나. 그럼 부모님을 더 잘 공양할 수 있겠네.
 갑 : '공양'이란 말이 원래 어떤 말인지는 알고 있니?
 을 : 글썄, '연세가 많은 분을 잘 모신다'는 뜻에서 온 것이 아닌가?
 갑 : ㉡아니야. 원래 '공양'은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는 불교 용어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통상 어른을 대접하는 일을 가리키게 된 거래.

㉠ () ㉡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장벽에서 근무했던 동독 국경수비대 대원 두 명이 통일 후 살인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벽을 넘어 서(西) 베를린으로 가려는 동독 시민에게 자동연속 총격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먼저, 당시 동독 국경법은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 행위를 저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경수비대 대원로서는 총격을 가하는 것 말고는 도주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 또한,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동독 국민이 적국의 영토로 넘어가는 것을 어떤 경우이든 저지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월경의 저지가 생명의 보호보다 우선시 되었다. 아울러, ㉠월경 도주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여 국경수비대 대원이 동독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례가 없었고, 이는 국경 수비를 위한 도주자 사살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 당시의 동독 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도주자의 다리 부분을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자동연속 발사의 경우 첫 발이 발사된 후에는 총구가 위로 들려 도주자의 몸통 부분을 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을 금하는 동독 형법에 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은 월경 도주자의 사살 행위가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별개라고 보았다. 정의와 인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다. '중대한 위반'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나치독재가 종식된 후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학살에 종사했던 자들의 처벌이 문제시 되었을 때, 지나치게 불의한 법은 법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물론 국경수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인명 손상과 나치시대의 대량학살은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그러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의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우리는 그 요구 내용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당시 동독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규약'으로 칭함)에 가입해 있었다. 국제규약 제6조는 인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생명권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인간은 생명권이 있고 그 생명은 자의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생명에 위해(危害)가 되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 월경 도주자의 사살은 설령 국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 :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적 상태.

3-1.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50자 이내) (25점)

3-2. 다음은 ㉠에 대한 반박문의 일부이다. ㉡의 '중대한 위반' 개념을 사용하여 반박문을 완성하시오. (200자 이내) (40점)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_____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선생이 저녁의 서늘한 틈을 타서 뜰에 나가 거닐다가, 한 마리의 거미가 종횡으로 교묘하게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았다. 이 선생은 그것을 보고 거미에게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 있다고 여겨, 지팡이를 쳐들어서 그 거미줄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때 거미줄 위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줄을 짜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오.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게 해독을 끼치는 게요?”

이 선생이 노하여 말하였다.

“거미줄을 설치하여 생명을 해치는 것은 벌레들의 적이다. 나는 너를 제거하여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겠다.”

그러자 그 자는 다시 꺾꺾 웃으면서 말하였다.

“아아! 어부가 그물을 설치하여 바다의 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을 두고, 어부가 포악한 짓을 한다고 하겠소? 사냥꾼이 펼친 그물에 들짐승이 걸려 부엌 요리로 오르게 된다면, 사냥꾼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소? 법무관이 내건 법령에 악독한 자가 저촉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걸 두고 법무관의 잘못이라 하겠소? 만일 선생 말대로라면, 선생 같은 분들이 어찌하여 복희(伏羲)*가 그물을 칠 때 간하여 말리지 않았고, 백익(伯益)*이 산악을 불태울 때 막지 않았으며, 고요(皋陶)*가 죄를 논할 때 잘못이라고 꾸짖지 않았단 말시오? 그것과 이것이 뭐가 다르단 말시오?”

더구나 선생은 내 그물에 걸려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오? 나비는 방탕한 자라서 분단장을 해서 세상을 속이고, 파리는 소인배라 옥같이 깨끗한 자도 그 놈 똥이 묻으면 참소를 당하며, 매미는 제 울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여 시끄럽게 울어대오. 이들 무리들은 스스로 허물을 만들어 액을 피할 수 없기에 내 그물에 걸려드는 게요. 나는 신선이 아니기에 공밥을 먹을 수도 없는 일시오. 저들이 그물에 걸린 것은 저들의 잘못이니, 내가 그물을 친 것이 어찌 잘못이란 말시오? 그렇거늘 선생은 저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만 화를 내며 나를 휘방하면서 도리어 저들을 보호한단 말시오?

또한 그대는 아무쪼록 내 그물에 걸려든 자들을 잘 보고 삼가고 힘쓰도록 하시오. 스스로 이름을 팔지 말고, 재주를 함부로 자랑하지 말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재앙을 부르지 마시오. 똑똑한 체 하며 망령되게 굴지 말고,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마시오. 땅을 잘 가려서 디딜 만한 곳인지를 알아본 뒤 발을 내디디고, 때를 맞추어 갈 때 가고 올 때 오도록 하시오. 세상에는 나보다 **큰 거미**가 있으니, 그 거미줄은 내가 쳐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오.”

이 선생이 그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져 버리고 세 번이나 자 빠질 정도로 허겁지겁 내달려 문간에 이르러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바닥을 굽어보면서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거미는 다시 나와서 종전처럼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 이옥, 「지주부(蜘蛛賦)」

- * 복희(伏羲) : 백성들에게 고기 잡고 목축하는 방법을 가르친 전설 속의 왕.
- * 백익(伯益) : 순(舜)임금 때 신하로, 치수(治水)로 공을 세웠으며 불을 관장하여 산악을 태워 짐승들을 도망가게 함.
- * 고요(皋陶) : 순(舜)임금 때 신하로, 법령을 관장함.

(나) 아직도 ㉡나는 거미가 왜, 끈적한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지 이해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법이 불법(佛法)이고 불법(不法)이다. 커브를 튄다, 택시들이, 자전거들이 거미줄을 타고 굴러간다. 교통순경은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다 보고 있다.

등이 거미줄에 붙은 날벌레들, 허공 쪽으로 발을 내밀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구원을 미끼로 등 쳐먹는 자들에 대한 나의 구원(舊怨), 오늘은 또 누가 걸려들었나 보자, 처마 밑에서 궁둥이가 큰 거미가,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내려온다.

껍충 뛰듯이, 거미줄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는, 큰 거미, 해가 거미줄을 녹일 듯이 뜨겁게 진다. 내일은 아마, 눈에 해 뜨지 않는 자들이 꽤 있을 거야, 어기적거리며, 궁둥이가 큰 거미가, 처마 밑으로 천천히 올라간다.

- 최승호, 「거미줄」

4-1. 거미줄로 벌레를 잡아먹는 행위에 대해 (가)의 ‘㉠’와 (나)의 ‘㉡’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행위 주제’와 ‘관찰자’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35점)

4-2. 다음 <보기>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조하여 (가)의 **큰 거미**가 치는 ‘거미줄’이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35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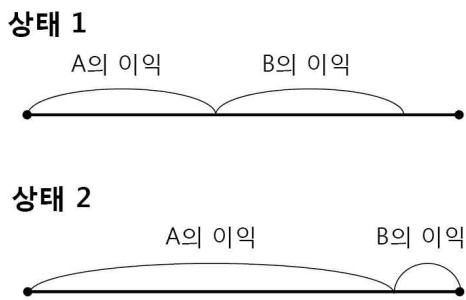
원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은 원스턴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도 낱알이 포착한다. 더욱이 그가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국가에서 임명한 사상경찰들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어찌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의 선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도청당하고, 캄캄한 때 외에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만 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효율성은 자원이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용어를 빌자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나 만족의 총합이 가장 커지도록 자원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효율성을 정의한 것이 ‘파레토 효율성’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이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을 이 상태보다 더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이익을 늘리는 변화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커지게 하는 효율성의 증진으로서, ‘파레토 개선’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효율성이 더 이상 증진될 여지가 없는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인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A와 B, 단 두 명인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다음 그림은 두 사람 사이에 이익이 분배되는 여러 가지 상태 가운데 두 가지만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상태 1은 A나 B의 이익을 줄이지 않고도 B나 A의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태이므로 효율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비해 상태 2는 다른 이의 이익을 줄이지 않고는 A, B 누구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태 1을 낳는 변화가 아니라 상태 2를 낳는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에 따르면, 이익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는가를 가리키는 형평성은 효율성과 무관한 개념이다.’라는 것도 이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효율성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에는 효율성의 증진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세상에 누구의 이익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변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를 들어 노예 해방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이익을 증진시킨 변화였지만, 적어도 소수의 노예주인들에게는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에 따르자면, 이러한 변화는 효율성의 증진이나 사회적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변화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경제학자들은 ‘칼도- Hicks 효율성’이라는 덜 엄격한 효율성 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변화로 인해 누군가에게 생겨난 이익의 증가가 그 변화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생겨난 이익의 감소보다 크다면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전적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율성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칼도- Hicks 효율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따지는 방법도 효율성의 증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1백만 명의 이익을 99만 원씩 줄이더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의 이익을 1조 원 더 늘리는 변화는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개선으로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 이 변화가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는 없다.

5-1.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25자 이내) (3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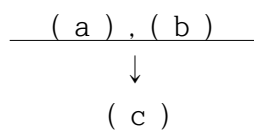
5-2. 다음은 ㉡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를 서술한 것이다. 빈칸(가)~(라)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을 각각 a, b 가운데에서 고르시오. (각 7점, 총 28점)

배고플 때 밥 한 술은 배부를 때 밥 한 술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 한 사람만 놓고 볼 때,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질수록 그가 느끼는 만족의 총량은 커지지만,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 예컨대 1만 원의 증가로 인해 추가되는 만족의 크기는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질수록 점점 (가)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이 주는 만족이 (나)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금전적인 이익의 총합이 (다) 경우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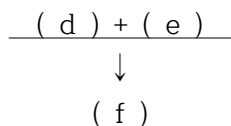
- (가) : a. 늘어날 b. 줄어듦
- (나) : a. 더 클 b. 더 작을
- (다) : a. 늘어날 b. 줄어듦
- (라) : a. 늘어날 b. 줄어듦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논증이란 어떤 문장(명제)을 토대로 새로운 문장을 도출하는 정신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토대가 되는 문장을 '전제'라고 하고 도출된 결과 문장을 '결론'이라고 한다.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논증은 합류논증과 결합논증으로 구분된다. 합류논증은 전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제만으로도 결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합논증은 제시된 전제들이 반드시 함께 결합해야만 결론을 제공하는 논증이다. 합류논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 또한 (b) "사형제도 외에 범죄율을 낮추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c)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결합논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 "비가 오면, 철수는 결석한다." (e) "철수가 출석했다." 따라서 (f) "비가 오지 않는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이처럼 논증구조를 표현할 경우, '↓'는 밑줄 위의 문장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함을 의미하고, ','는 합류를, '+'는 결합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논증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논증이 타당하지 않을 때, 이를 '부당한 논증' 또는 간단히 '오류'라고 한다. 이러한 오류들 중에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언어적 오류'라고 한다. 대표적인 언어적 오류에는 ㉠애매어의 오류, ㉡모호어의 오류, ㉢강조어의 오류 등이 있다. 애매어의 오류는 논증에 사용된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화자와 청자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 좀 들어!"라고 했을 때, 아이가 "토끼라면 모를까, 저는 말을 들 수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경우이다. 이런 차원에서 동일한 단어(기표)라도 다양한 의미(기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호어의 오류는 논증에 사용된 특정한 언어가 지시하는 외연, 즉 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경계가 불명료한 데서 발생한 오류이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런 문장은 모호어의 오류를 범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어느 정도 해야 '공부 잘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강조어의 오류는 문장에서 특정한 단어를 강조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웃집 부인과 싸우지 말라."는 문장에서, '이웃집'을 강조하면, 옆 동네 부인과는 싸워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부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 이웃집 아저씨와는 싸워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6-1. (가)를 참고하여 <보기>의 내용을 아래의 <논증구조>로 도식화하고자 한다. (a)와 (b)에는 논리적 기호(, 또는 +)를, (1)~(4)에는 <보기>의 문장 기호(㉠~㉣)를 쓰시오. (각 5점, 총 30점)

<보 기>

㉠ 많은 학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한다. 사실 ㉡ 시내버스는 많은 경유지를 거치는 반면 지하철은 적은 수의 역을 경유하기에 학교에 빨리 온다. 다른 한편으로 ㉢ 시내버스는 교통 혼잡으로 도착 시간을 엄수할 수 없지만, 지하철은 외부의 교통 사정에 상관없이 엄격한 도착 시간을 지킨다. 그런데, ㉣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이동 인구를 갖고 있는 경북대학교를 경유하는 지하철 노선이 없다. 따라서 ㉤ 경북대학교를 경유하는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어야 한다.

<논증구조>

$$\frac{(㉠)(a)(1)}{\downarrow} \\ \frac{(2)(b)(3)}{\downarrow} \\ (4)$$

a () b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6-2. 다음 <보기>는 (나)의 ㉠~㉣ 중에서 어떠한 오류를 범하는지를 말하되 그 이유를 문제가 되는 단어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오류를 피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40점)

<보 기>

어느 날 오후, 시골 노인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먼저 할아버지가 말했다.
 "꿈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다."
 할머니가 대꾸했다.
 "영감, 의사 선생이 말하는데, 꿈이 많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아! 이 사람아! 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아무 꿈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할머니가 다시 대꾸했다.
 "꿈이 많으면 잠을 못자! 사람이 잠을 자야 다음 날 일을 많이 하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꿈 이야기로 오후 내내 논쟁을 했지만 계속 자기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문제 해설

인문계열

1. 논술(AAT)의 목적과 출제 방향

경북대학교가 실시하는 인문사회계열 논술(AAT)은 이 방면의 대학 전공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적 역량, 즉 텍스트를 읽고, 그에 서술된 사실적 정보와 의견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제3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의 함양과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논술(AAT)은 학생들이 여러 경로의 선수학습을 통하여 축적한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의 양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물론 시험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 판단하려는 것이다. 다만 논술(AAT)에서 측정하려는 지적 역량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지(既知)의 사실에 대한 다양하고 특별한 지식의 양이나 정확도가 아니라, 고교 수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기본개념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 여부, 또 이를 적용하여 주어진 과제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침착하게 과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지 여부이다. 즉 논술(AAT)은 사태 파악, 문제해결을 위해 발휘하는 지적 순발력과 응용력의 측정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예년도와 같이 이해, 분석, 비판, 추론의 결과를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역량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2. 논술(AAT)의 주제 및 출제 배경

경북대 논술(AAT)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우리 사회 현실, 인간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주제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었다. 이하에 열거한 6개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문에 대한 독해 및 분석 능력, 논리적 추론 및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응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논술(AAT)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다양한 문헌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주고 각각의 자료와 결부된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 또는 50자~200자 이내로 약술하는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지난 해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으로서, 과제의 해결 결과를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1] 기술문명에 대한 고전적 비판론과 현대 사회에서 기술맹신이 빚어낸 부작용 사례의 대비
- [2] 인간의 언어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 [3] 불의한 실정법에 대한 맹종과 본질적인 정의 사이의 갈등
- [4] 동물우화를 통해서 본 인간사회의 약육강식 현상에 대한 성찰과 비판
- [5]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하고 배분적 형평성 사이의 괴리 관계
- [6] 논리적 추론과 논증의 규칙

3. 논술(AAT) 제시문 및 문제 유형

올해 실시된 논술(AAT) 문제는 예년과 같이 다양한 문헌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주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 단답형 또는 50자~250자 이내의 약술형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4. 교과서 관련 내용

논술(AAT) 문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으로서 그 주제 및 제시문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인문·사회계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강조할 사항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개념이 직접 사용되거나, 깊이 연관된 자료를 제시문으로 제공하는데 유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면 논술(AAT) 문제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논술 주제 및 제시문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번 (주제: 기술문명에 대한 고전적 비판론과 현대 사회의 기술맹신이 빚어낸 부작용 사례의 대비)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언론자유와 윤리’, 270-272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대중매체’, 190-197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대중매체의 유형과 특징’, 203-206쪽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정체성’, 172-182쪽.
- 고등학교 『국어(하)』(창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262-275쪽.
- 고등학교 『철학』(대한교과서주식회사), ‘자유는 무엇인가’, 186-188쪽.

2번 (주제: 인간의 언어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 38-45쪽.
-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24-37쪽.
- 고등학교 『법과 정치』(천재교육), ‘정치 참여와 선거’, 56-63쪽.

3번 (주제: 불의한 실정법의 한계와 본질적인 인권보장)

- 고등학교 『법과 정치』(천재교육), ‘기본권과 의무의 이해’, 100-111쪽.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국제 관계와 국제법,’ 208-210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국가와 윤리,’ 236- 243쪽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인권보장과 법,’ 216-221쪽.

4번 (주제: 동물우화를 통해서 본 인간사회의 약육강식 현상에 대한 성찰과 비판)

고등학교 『사회·문화』, 4. 사회계층과 불평등, 2.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1. 빈곤문제. 149쪽~151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IV.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3. 사회 복지 문제와 윤리, 206쪽~215쪽.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IV. 함께 사는 씨줄과 날줄, 2. 물질적 삶의 조건, 경제, 92쪽~111쪽.

고등학교 『철학』, V. 나와 너, 그리고 우리, 2.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2) 평등이란 무엇인가, 188쪽~193쪽.

5번 (주제: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하고 배분적 형평성 사이의 괴리 관계)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pp.26-29. (어느 출판사라도 무방함)

윤여탁 외(2012), 중학교 『국어 ①』, ‘언어의 특성’ 단원, 미래엔

이도영 외(2013), 중학교 『국어 ②』, ‘언어의 특성과 우리말의 음운 체계’ 단원, 창비.

김태철 외(2013), 중학교 『국어 ④』, ‘의미를 담아서’ 단원, 민지의 꽃, 비상.

남수인 역(2001), 글쓰기와 차이(자크 데리다 저), 동문선.

김보현 역(1996), 해체(자크 데리다 저), 문예출판사.

김현권 역(2012), 일반언어학 강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6번 (주제: 논리적 추론과 논증의 규칙)

5. 문제 해설

■ 1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마셜 매클루언의 『미디어의 이해』, ‘제 7장 도전과 붕괴에 : 창조성의 보복’에서 발췌한 것이며, 원문은 장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莊子』 天地편, 有機械者, 必有機事 / 有機事者, 必有機心). 제시문 (나)는 니컬러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유리 감옥』에 등장하는 예를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기술의 무비판적 수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국적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이다. 기술을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초래할 위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립적인 두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자동화된 기술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초래한 실제 사례이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과학기술과 윤리’, 110-119쪽.

고등학교 『사회 문화』 (미래엔) ‘현대사회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 235-239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동양과 한국의 윤리사상’, 96-105쪽.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미래엔) ‘문명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218-219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학사)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 정체성’, 172-182쪽.

▶ 문제 해설

이 문항의 핵심 질문은 기술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에게 체화되어 인간의 기계화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지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 문제의 난이도를 더 올리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화라는 기술을 피할 수 없다면, 인간은 기술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자동화에 매몰되면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감각을 신뢰하지 않고 기계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인간이 기계의 하수인 혹은 지배를 받는 역설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이 기계의 작동방식과 유사하게 된다. 최근 등장하는 각종 자동화 기술은 일견 인간화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사용을 통해 우리 인간이 변하는 모습은 기술의 인간화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의 작동방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수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모범답안(예시)

1-1.

자공 : 기술의 사용은 효율성을 증대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준다.

노인 : 기술을 사용하면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기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1-2.

인간은 주체성(자율성, 능동성으로 대체 가능)을 상실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기술의 자동화에 매몰되면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감각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역설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 2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이 제시문은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뿌리 깊은 두 가지 담론인 ‘문화우위론’과 ‘언어결정론’에 대한 내용과 문화를 축적한 언어가 전파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원인을 기술한 글이다.

문화의 일부인 언어는 인간 삶의 양식인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언어와 문화의 영향 관계에는 문화가 언어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문화 우위론’과 언어가 문화를 유형화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언어결정론’에 대한 관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언어로 축적된 문화는 언어를 통해 이웃에 전파되기도 하고, 후대에 전승되기도 한다. 문화를 추상화한 언어가 전파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음운, 형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언어의 의미 변화에 작용하는 원인으로 언어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역사적 원인, 문화적 원인 등이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적 환경이 형성되면서 신어도 많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가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현상도 모두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 ((주)미래엔), I. 언어의 세계 읽기 1. 언어와 인간 (1) 삶과 언어, 14-18쪽.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 ((주)미래엔), III. 우리말의 의미 형성 3. 의미 (1) 단어의 의미, 131-135쪽.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 (비상교육), I. 언어와 독서 2. 언어와 생활 01.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 27-34쪽.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비상교육), III. 국어의 변천 4. 근대국어, 122-130쪽.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비상교육), IV. 독서의 실제, 1. 목적에 따른 글 읽기, 140-144쪽.

고등학교 『사회 문화』 ((주)미래엔), III. 문화와 사회 01. 문화의 이해, 96쪽.

고등학교 『사회 문화』 ((주)금성출판사) 3. 문화와 사회 1. 문화와 인간생활 2. 문화의 요소와 기능, 101-102쪽.

▶ 문제 해설

이 문항은 한 편의 글에 대한 독해를 통해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 및 현실적 상황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했다. 특히 텍스트를 잘 읽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어 요약하고 조건에 맞춰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학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물이 없는 것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의 언어도 변한다. 말도 그 소리와 형태나 기능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달라진다. 언어의 변화는 언어학자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연구 영역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의미론자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변화는 언어 자체의 변화와 아울러 의미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기도 했다. 메이에(Meillet)는 의미 변화의 원인을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했고, 니롭(Nyrop)은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울만(Ullmann)은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외국어의 영향, 새로운 명명의 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 울만의 외국어의 영향은 사회적 원인에 포함 가능하고, 새로운 명명의 필요성은 언어적 원인 혹은 심리적 원인에 관계되거나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언어의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그 유형에 맞게 주어진 실제 상황에 연결하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2-2. 이 문항은 제시문을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두 가지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연결하는 능력과 이를 제한된 글자 수에 맞춰서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언어와 문화의 영향 관계에 대한 뿌리 깊은 두 가지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의 영향 관계에는 문화가 언어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문화 우위론’과 20세기 초 사피어와 워프가 제안한 언어가 문화를 유형화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언어결정론’에 대한 관점을 구분하여 파악한다.

이를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주다는 관점과 언어가 문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점으로 구분하고, 제시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각각 그러한 관점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찾아내어 이를 요약하여 근거로 삼아서 두 가지 관점에 맞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자수 제한(200자 이내)이 있으므로 내용을 압축하여 답안을 요령있게 기술하는 것이 관건이다.

▶ 모범답안(예시)

2-1.

㉠ (㉡) ㉢ (㉣)

<해설>

㉠은 음운적 유사성에 의해 발생한 민간어원의 경우이므로 언어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종교 집단인 불교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보다 넓은 사회 집단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일반화한 경우로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2.

바다 어휘가 발달한 팔라우족과 생물 명칭이 발달한 하누족은 다양한 문화 요소가 언어에 축적된(담겨진, 추상화된) 경우로 문화가 언어 형성에 영향을 끼친 관점이고, 무지개 색깔의 표현 언어가 세 가지인 바사족과 과거와 현재 시제(시간)를 표현하는 언어가 없어 다른 시제(시간) 개념을 가진 호피족은 언어가 인식(지각,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 문화를 재단한 것으로 언어가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관점

이다.

■ 3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그 의의를 살려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은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베를린장벽에서 동독의 국경수비대 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서(西) 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동독 시민에게 자동연속 총격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두 명의 병사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베를린장벽은 동서독의 국경 역할을 했고, 다수의 동독 시민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동독 국경법은 국경수비대에게 어떤 경우이든 간에 국경을 사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도주자를 사살했다고 하여 동독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은 사례가 없었다.

통독 후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총격이 국경법에 규정된 국경수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 도주자의 다리 부분을 조준하여 사격을 가했으므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총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국경수비를 위해 도주자를 사살하는 것은 당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독일 연방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위 당시의 동독 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국경 수비대의 대원들은 국경수비 임무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교육받았고 경우에 따라 도주의 저지를 위해 총격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피고인들은 자동연속 총격이 그 특성상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도주자 사살이 과거에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법원은 히틀러 나치독재 시기에 대량학살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과 처벌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제기된바 지나치게 정의에 반하는 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소위 ‘라드브르흐(G. Radbruch)의 공식’을 거론하면서, 당시 동독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同) 규약은 제6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자의적으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를 저지하기 위한 것 이외의 경우에 생명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하고, 국경을 넘어 도주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주자를 사살하는 것은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되며 따라서 당시 동독 법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였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기본권과 의무의 이해,’ 100-111쪽.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국제 관계와 국제법,’ 208-210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국가와 윤리,’ 236- 243쪽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인권보장과 법,’ 216-221쪽.

▶ 문제 해설

1번 문항은 제시문을 읽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으로,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문 말미에 ‘미필적 고의’의 낱말 뜻을 달았다. 제시문을 꼼꼼히 읽는다면 무난하게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2번 문항은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과 과연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가는 별개라는 것을 문두로 삼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생명권의 침해이므로 제시문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동시에 국제규약상 규정된 생명권의 침해이므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 모범답안(예시)

3-1.

피고인들은 자동연속발사 총격으로 인해 도주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3-2.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월경 도주자의 사살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동독이 가입했던 국제규약에 반한다. 국제규약은 생명의 자의적 박탈을 금하고 있고, 월경 도주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월경 도주자의 사살은 자의적 생명 박탈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시 동독 법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였다.

■ 4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이옥의 ‘지주부(蜘蛛賦)’이며, (나)는 최승호의 ‘거미줄’이다. (가)는 조선후기의 한문수필로, 거미를 소재로 하여 우의적으로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 이옥(1760~1815)은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수필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 작품에서는 거미에 대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거미의 처지에서 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현상이 처지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미의 말을 듣고 허둥대며 도망가는 이 선생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옳다고 여겨온 생

각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혼란을 느꼈을 이 선생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또 세상에 훨씬 큰 거미가 있다는 거미의 말을 통해 인간 세태를 드러내면서,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현대시로, 거미의 삶의 방식을 비유하여 인간들의 교활한 삶의 방식을 풍자하고 있다. 시인 최승호는 동물적 상상력으로 물질화 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의 교활하고 야비한 삶의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주로 썼는데, 이 작품에서는 거미의 생태를 통해 물질화된 도시에서 비열하게 남을 속여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방식을 풍자하고 있다. 거미는 공중에 집을 짓고 먹잇감이 걸리기를 몰래 기다리다가 걸린 먹잇감이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살려주는 척하며 그 먹잇감을 잡아먹는다. 자기가 쳐 놓은 거미줄에 자신은 걸려 죽지 않지만 타자는 그 거미줄에 걸리기만 하면 죽는 것, 즉 거미 자신에게는 불법(佛法)이 되고, 타자에게는 불법(不法)이 되는 거미줄은 거미의 교활함을 잘 예증한다. 이러한 거미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인간이 사는 도시적 삶의 방식으로 비유된다. 예를 들면, 교통순경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통의 거미줄에 걸리기를 바라며 숨어서 감시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작가는 도시적 삶이 교활하고 교묘한 덫의 세계임을 거미의 행태를 통해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문학』(상문출판사), ‘심생전(이옥 작)’, 177-180쪽.

고등학교 『문학』(상문출판사), ‘북어(최승호 작)’, 333-335쪽.

고등학교 『문학 II』(비상교과서), ‘조지오웰-1984’, 264-265쪽.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정보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235-238쪽.

고등학교 『사회』(비상교육), ‘현대 사회의 사회 변동’, 186-189쪽.

▶ 문제 해설

4-1. 이 문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위 주체의 입장과 관찰자의 입장에서의 상반된 관점을 문학 작품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행위 주체와 관찰자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문학작품에 내포된 의미들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논리추론력과 작품분석력이 요구되는 문항이다.

거미줄을 치는 행위에 대해 (가)의 ‘㉠나’는 행위 주체의 입장에서 이를 정당화한다. 거미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는 거미줄로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파리, 매미 등을 보면 스스로의 허물 때문에 거미줄에 걸린 것이기에 자신이 이들을 잡아먹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반면, (나)의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거미가 제 자신만을 생각하며 거미줄로 다른 벌레들을 유인하여 잡아먹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본다. 그것도 거미줄에 걸린 벌레들이 구원을 요청할 때 거미는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가가서는 벌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가 더욱 교활하고 야비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가)의 ‘㉠나’는 행위 주체의 입장으로, (나)의 ‘㉡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어야 한다. 또한 (가)의 ‘㉠나’는 행위 주체, 이 선생은 관찰자의 입장으로, (나)의 거미는 행위 주체, ‘㉡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세분하여 썼을 때도 정답으로 간주한다.

4-2. 이 문항은 문학작품과 현대사회를 연계하여 종합적 사고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의 ‘큰 거미’가 치는 ‘거미줄’은 바로 인간사회의 다양한 규율, 제도 등의 장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간사회의 거미줄이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국가체제를 위해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전방위적 감시체계가 등장한다. 일명 ‘빅 브라더(Big Brother)’라 불리는 이 감시체계의 한 대목이 <보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 매우 용이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4』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가)에서의 큰 거미가 치는 거미줄은 즉 인간사회의 거미줄인 다양한 규율, 제도 등의 장치들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인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모범답안(예시)

4-1.
(가)의 ‘㉠나’는 행위 주체의 입장에서 거미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거미줄로 다른 벌레(동물)를 잡아먹는 행위를, 그것도 허물이 있는 벌레(동물)를 잡아먹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고, (나)의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거미가 제 자신만을 위해 거미줄로 다른 벌레(동물)를 야비하게 속여 잡아먹는 행위를 부당하다고(탐욕스럽다고, 교활하다고) 평가한다.
* ()안의 것은 답안의 내용과 대체 가능한 것임.

4-1.
『1984』에서의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빅 브라더)과 같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 용이해졌다. 따라서 ‘큰 거미’가 치는 ‘거미줄’ 즉 인간사회의 규율, 제도 등의 장치들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국가체제(권력)를 공고히 하는(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안의 것은 답안의 내용과 대체 가능한 것임.

■ 5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효율성'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둘러싼 고민을 소개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결과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글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제'와 '윤리와 사상' 등의 사회탐구 영역 교과목에서 배우는 '효율성'과 '형평성,' '행복,' '분배,' '선택,' '비용,' '편익' 등의 기초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더욱 차원 높은 사고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문단에서는, 효율성이 자원 배분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근거라 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인식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자원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혹은 만족의 총합이 가장 커지도록 하는 자원 배분의 상태를 가리킨다.

둘째 문단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인식을 담아내기 위해 이탈리아의 사회철학자인 파레토가 제안한 효율성에 대한 정의, 즉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효율성을 달성한 상태, 즉 파레토 최적 상태는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익도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효율성의 증진, 즉 파레토 개선은 '누군가의 이익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늘리는 변화'가 된다.

셋째 문단에서는, 한 사회가 A와 B, 단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사례를 그림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을 이해한다. 또한 이 설명을 통해 경제학의 효율성 개념과 형평성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그 이유에 대한 독자들의 추론을 유도한다. 즉, A와 B 사이에 이익이 분배된 두 가지 상태를 예시함으로써, 효율성은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총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이익의 총합이 구성원들에게 얼마씩 돌아가는지, 즉 이익의 분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문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직관적인 설명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5-1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문단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엄격한 개념에 따라 효율성의 증진을 이해하게 되면 현실에서 효율성의 증진이라고 평가할 만한 변화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어려움을 소개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인 변화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이익의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예 해방조차, 사회적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칼도- Hicks 효율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늘어난 이익이 줄어든 이익을 능가하기만 하면 효율성의 증진, 즉 사회적 개선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자원 배분에 대한 통상적인 평가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임을 소개한다.

끝으로 여섯째 문단에서는, 이처럼 칼도- Hicks 효율성 개념에 입각하여 효율성의 증진을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애초에 효율성을 자원 배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상정하게 된 문제의식, 즉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효율성 개념과 충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한다. 즉, 칼도- Hicks 효율성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 늘어나 효율성의 증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줄어들어 공리주의적인 인식에서 볼 때에는 효율성의 감소로 평가해야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또한 효율성이 형평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문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암묵적 추론의 근거 논리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5-2를 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경제』(교학사), '합리적 선택과 경제적 유인', 20-31쪽.

고등학교 『경제』(교학사),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38-51쪽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경제 체제와 경제 목표', 20-31쪽.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32-47쪽.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정부의 역할과 의사 결정', 76-85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공리주의와 관념론', 154-155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12-217쪽.

▶ 문제 해설

5-1. 파레토 효율성이란 개념에 따르면,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 얼마나 큰가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형평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시문에서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익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는가'를 가리킨다고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평성이 효율성과 무관한 개념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A와 B 두 사람 사이에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과 A와 B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것을 서술하면 된다. 제시문의 사례에 해당하는 그림은 이러한 논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항은 제시문에서 나타난 사례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관계를, 제시문에 소개된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에 따른 효율성의 정의와 제시문에 명시된 형평성의 정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출제되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무관한 이유가 '이익의 총합의 크기'와 '이익의 총합의 분배'가 무관하기 때문임을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5-2.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은 늘어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줄어들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칼도- Hicks 효율성의 개념과 공리주의적인 효율성 개념이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효율성이 형평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이 문항은 제시문의 사례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은 늘어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줄어들 수 있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출제되었다. 제한된 시간에 수험생들이 제시문의 사례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추론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문항 형식은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즉, 논리적 추론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설명을 제시하고 빈 칸을 채우는 내용을 고르도록 함으로써, 즉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수험생들이 추론을 완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논리적 도출을 직접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논리적 도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논리적 도출의 전개 과정을 예시한 글을 통해 문항을 해설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문장에서는 “배고플 때 밥 한 술은 배부를 때 밥 한 술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논리적 도출의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둘째 문장에서는 “한 사람만 놓고 볼 때,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질수록 그가 느끼는 만족의 총량은 커지지만,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 예컨대 1만 원의 증가로 인해 추가되는 만족의 크기는 금전적 이익의 총액이 커질수록 점점 (가)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흔히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관계, 즉 이익이 커짐에 따라 ‘만족의 총합’은 커지지만 ‘추가되는 만족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앞뒤 문맥을 활용하여 추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동일한 크기의 금전적 이익이 주는 만족이 (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둘째 문장에서 제시된 한 사람의 경우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지만, 첫째 문장이나 전체 제시문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넷째 문장에서는,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금전적인 이익의 총합이 (다) 경우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의 총합은 (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의 두 빈 칸을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채우도록 한 것은, 앞 문장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추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과 전체 제시문의 결론과 상응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자면 (다)와 (라)를 a와 b로 채울 수도 있고 b와 a로 채울 수도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문장이 “㉠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를 서술한 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a와 b로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

▶ 모범답안(예시)

- 5-1.
 예시 1: 효율성은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과 관계된 것이므로, 구성원들 사이에 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형평성과 무관한 개념이다.
 예시 2: A와 B 두 사람 사이에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A와 B 두 사람의 이익의 합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은 효율성과 무관한 개념이다.
 예시 3: 효율성은 A와 B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총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A와 B 두 사람 사이에 이익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는가 하는 형평성과 무관한 개념이다.

5-2.

- (가) b
- (나) a
- (다) a
- (라) b

■ 6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지문 (가)의 내용은 고등학교 『논리학』의 ‘논증의 분석’ 장에 근거하여 출제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논증은 합류논증과 결합논증으로 양분된다. 합류논증은 전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제만으로도 결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합논증은 제시된 전제들이 반드시 함께 결합해야만 결론을 제공하는 논증이다. 합류논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 또한 (b)“사형제도 외에 범죄율을 낮추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c)“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결합논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비가 오면, 철수는 결석한다.” (f)“철수가 출석했다.” 따라서 (g)“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제시문은 이러한 논증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구체적 도식을 통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지문 (나)의 내용은 고등학교 『논리학』의 ‘오류 논증’의 장을 근거로 언어적 오류에 대한 내용을 출제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때, 특히 제시문은 언어적 오류들 중에서 ‘애매어의 오류’, ‘모호어의 오류’ 그리고 ‘강조어의 오류’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들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논리학』, 교학사, 논증의 분석과 구성, pp. 28~55.

고등학교 『논리학』, 대한교과서, 연역, pp. 150~200.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1』, 천재교육, 언어 표현과 화법, pp. 14~36.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1』, 비상교육, 의미, pp. 253~262.

▶ 문제 해설

본 문제는 논증분석 능력과 종합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문제이다. 지문을 읽고 전체를 구조화하는 능력의 측정은 문장 분석력과 종합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다른 한편으로 논술 문제의 약점인 정답과 오답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문제이다. 두 문제 모두 지문의 내용을 읽고 이를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을 참조하여, 주어진 논증을 구조화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에서 제시된 오류의 종류와 구체적 예를 참조하면서, 보기에 등장하는 논증이 범하는 오류의 종류를 일차적으로 말하고, 둘째로 그 근거를 문제가 되는 단어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 문장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본 논증은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왜냐하면, 화자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의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로서의 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애매어의 사용을 피하거나 사용해야 할 때엔 그 단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 모범답안(예시)

6-1.

a (,) b (+)

(1) ㉠ (2) ㉡ (3) ㉢ (4) ㉣

6-2.

본 논증은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자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의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로서의 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애매어의 사용을 피하거나 사용해야 할 때엔 그 단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